

11 웃음

성공하는 사람에겐 표정이 있다. 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정연아씨. 그녀의 웃음철학과 다른 이들의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한 힘을 들어보았다.



10 웃음

인간의 특권이라 불리는 '웃음'. 웃음의 심리학적 분석과 의학적 분석을 통해 웃음의 본질을 파헤쳐 보았다.



9 경희의 이름으로

오는 12일에 '홀볼트 상'을 수상하는 정찬 허영(연세대, 헌법학) 교수. 기존의 사고를 깨고 또다른 세계로의 접근 시도가 그를 오늘의 세계적인 학자로 만들었다. 그만의 법학론을 들어본다.



대학주보 테마신문 Free style

12 제1149호

1998년 6월 1일(월요일)

□ 과연 웃음의 가치는 무엇인가

‘웃음’은 자기 이미지의 보증 수표

당신을 어느때 하얀 또는 누런 아이를 보이며 웃음을 짓는가.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분이 좋거나 웃기는 말을 들었을 때일 것이다. 그렇다면 상대방에게 재미있는 말을 들었을 때 당신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책상이나 앞자리를 때리며 발을 동동 구르며 웃는가. 아니면 웃을 때마다 손으로 입을 가리는가. 그것도 아니면 얼굴을 좌우로 약간 흔들며 소리없이 웃는가. 어느 것이든 좋다. 웃음은 어떠한 경우도 우리에게 행복을 주니까.

그렇다면 웃음이 가지는 영향력에 대해 생각해 보자. 웃음이 가지는 효과는 매우 크다. 상대방과 처음 만났을 때 부드러운 미소를 짓는다면 80%는 첫인상에서 성공한 것이다. 또한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웃는 얼굴로 마주한다면 그 역시 몇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화가 나고 싸움이 나 상대방과 다투어도 마찬가지다. "웃는 얼굴에 전 못 뽀니"라는 옛 속담도 있지 않은가.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런 것들 말고도 웃음이 주는 영향력은 엄청나다. 이해하고 불만을 지어에 있어 있을 때 한 마디의 유머로 모든 사람의 입가에 웃음을 짓게 만드는 것은 전력을 다하여도 정말 불가능할 수 있다. "웃음"이라는 하나의 현상이 유대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웃음은 연봉에 불만을 던지면 화제가 만들어져 재능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우위로 화제나 되는 현상이 있다. 내가 먼저 웃으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웃게 된다.

재미있게 혼자 보던 영화도 여럿이 함께 보면 재미있는 장면에서는 상대방의 웃음에 따라 자기도 웃게 된다. TV에서 나오는 코미디 프로그램 역시 마찬가지다. 중간중간에 웃음소리의 효과음을 넣어 "웃음"의 효과가 배가 되도록 한다. 이러한 웃음의 파장을 잘 이용한다면 자기의 이미지를 상대방에게 더욱 강력하게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자기 이미지 관리를 효율적으로 한다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표정이 그 사람의 대인관계나 미래를 위한 키워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웃음의 효과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병을 치료하는 요법이 될 수도 있다. 간암을 선고받은 한 중년남자가 웃음으로 병을 호전시켰다는 과거 한 일간지의 기사는 "웃음"의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있게 해준 계기가 된다. 실제로 웃음은 면역력의 증진과 관련이 깊다. 웃고 있을 때는 면역력을 강화시켜준다는 의학적인 근거가 있다. 자주 웃으면 암이 전보다 백혈구가 3배정도 증가하고 우리 몸에서 진통 작용을 하는 호르몬 즉, 엔돌핀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전 "신바람 건강법" 신드롬을 몰아넣었던 연세대에 연세 환수관 교수가 있다. 그는 "우선 환자를 입에 웃음을 머금고 나면 자신들에게 웃음을 전한다"고 말한다. IMF시대에 그는 "미미한 그 미소를 통해 환자를 웃게 한다. 항상 웃음을 잃지 말라"

그렇다면 웃음은 우리 사회에서 평상시 표현해 웃음에 대한 것을 갖게 되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가발을 다닐 때. 대부분의 사람들의 표정에는 무표정함이 있는 듯한 인상이 강하다. 연세가 한 외국인과 대화에서 이런 말이 나온 적이 있었다. "한국사람들은 너무 무표정하

다. 가발을 다닐 때나 밥을 먹을 때 쉽게 웃는 법이 없다. 왜 그런가. 무슨 화는 일 때문인가?" 그 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니,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지 몰랐다고 해야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것이다. 이 모든 말이 말가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주위를 둘러보며 사람들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 보라. 그들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아마 10명중 7명이상만 무표정한 표정을 짓고 있을 것이다. 아니면 거울앞에 달려가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 보라. 거울 속에 서있는 당신의 모습 역시 어느 사람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IMF시대. 전보다 주름살이 더욱 깊게 켜 수 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다. 명퇴를 당하고, 부도가 나고, 제대로 된 직장을 찾아보지도 못한 채 낙오자가 되고, 정말 웃을 수 있는 여유조차 없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웃음의 가치 역시 과거에 비해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살만만하고 있을 것인가. 이런 때일수록 가장이나 학교 또는 직장에서 웃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 언제나 즐겁게 웃을 수 있다는 것은 희망의 존재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랑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한가. 미간에 잔뜩 주름이 잡혀있지는 않은지, 상대방과의 대화속에서 찡그린 얼굴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 모든 것을 잊어버린 채 거울앞에 서서 한바탕 호쾌하게 웃어보자.

(김동혁 기자)

웃음

힘든 IMF시대. 답답한 현실 속에 진정한 웃음의 가치는 무엇인지 다루어 보았다

□ 유머와 웃음

웃음을 통해 자기 이미지를 찾아본다. 여기에 실은 글들은 천리안 인터넷 쪽 소유채권에서 따온 것이다. 거울 앞에 서서 이 글들을 읽고 크게 한번 웃어 보자. 물론 재미없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무튼 IMF한파에 짓눌려 짜증나는 세상살이를 웃음을 통해 시원하게 날려 보내자

(편집자)

광고에 숨은 뜻

1. 네스카페 광고 : 낡은 소형차를 타고 교통체증에 걸린 남자. 운전자가 네스카페를 마시자 스포츠카로 바뀌고 옆에 미녀가 달려온다. 네스카페에는 '환각 작용'이 있다는 뜻이 아닐까?
2. 대우자동차 할부광고 : 등장 인물은 하나도 없이 성우의 내레이션으로 새로운 자동차 할부 판매를 광고한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장면에 강아지 한마리가 뛰어간다. 지금까지 개소리였다는 뜻이 아닐까?
3. 애플 휴대폰 : 누군가에 쫓겨 달리는 가치지붕까지 간 안정기가 애플에 대고 "본부 - 본부 -"하자 헬기가 와서 구조한다. 몸도 못 일으키는 심한 바람이 부는 데도 완전히 놓여있는 애플. 음성 인식 기능은 둘째치고 애플이 무지 무겁다는 뜻이 아닐까?
4. 신세계 017 : 무인도에 갇힌 두 사람이 서로 휴대폰으로 구조를 요청하는데 박성원의 휴대폰이 터져서 둘은 간신히 구조된다. 형들이 머리, 답수룩한 수염으로 보아, 3박 4일은 있었던 것 같다. 그럼 한 번 통화 하려면 SK나 신세계나 수만번 시도해야 걸린다는 것이 아닐까?
5. 펄스콜라 : 사람들이 있는 곳마다 나타나는 펄스맨. 한 손을 쪽 뺀 좌우로 흔든다. 펄스콜라를 마시면 나같이 눈, 코, 입 있는 기형아 된다고 적극 말리려 다니는게 아닐까?

빠있는 한마디

존이 성적표를 받아왔다. 존 아버지가 확인해 보니 성적표는 전과목 모두 F에 수확한 D를 받은 것이었다. 존의 아빠, 이번만큼은 한마디 하기로 단단히 마음을 먹고 한참동안 성적표를 훑어지려 쳐다보더니 드디어 발문을 열었다. "존, 너무 한과목에만 치중하는거 아니냐?"

엘리베이터에서...

상황 : 여러 사람과 같이 타고 있는데 방귀가 나오려 할 때. 그것도 분명히 냄새가 실한 것으로 예상될 때.
다행 : 방귀가 나오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다 내릴 때.
기쁨 : 혼자만이 있는 엘리베이터에서 시원하게 한 방 날렸을 때.
창피 : 냄새가 채 가시지 전에 다른 사람이 왔을 때.
고통 : 둘만 타고 있는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사람이 지독한 방귀를 뀌었을 때.
울화 : 방귀 낀 놈이 마치 자기가 안 그런 양 탄탄 피울 때.
고독 : 방귀 낀 놈은 내리고 그 놈의 체취를 혼자 느껴야 할 때.
억울 : 그 놈의 체취가 가시기 전에 다른 사람이 올라타며 얼굴을 찡그릴 때.
울분 : 얼마 손잡고 올라간 아이가 나를 가리키며 "엄마, 저 사람이 방귀뀌었나 봐" 할 때.
허탈 : 엄마가 "누구나 방귀는 뀌 수 있는 거야"하며 아이를 타이릴 때.

F학점의 비사

교양영어 과목에서 F학점을 맞은 달수가 담당 교수를 찾아가 애원하며 말했다. "교수님, 제가 왜 F학점을 맞아야 합니까?"
그러자 교수가 대답했다. "달수군, 나도 심히 유감스럽네. 하지만 F학점 보다 낮은 학점이 없는 걸 난들 어떻게 하냐?"

□ 이보다 더 웃길 수 없는 전락

우스운 사람을 실패하지만 웃기는 사람은 성공한다

웃음은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한다. 단지 웃음을 보여줌으로써 "나는 당신의 적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또한 첫인상에서 웃음의 역할은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 그렇기에 웃기는 것만큼 웃는 것도 대인관계에서는 중요하다.

그러나 기계처럼 일삼만으로 억지로 웃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킨다. 상대방과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려면 꾸미지 않은 진실된 웃음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습도 필요하다. 불쾌감이나 우울함 속에서는 웃음이 나올 수 없고 편안함과 기쁨 속에서는 의의를 느낄 수 없다.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입이 아닌 가슴으로 웃을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상대방도 웃을 수 있다.

사람들은 우울한 말을 싫어한다. 또한 비판적인 이야기를 듣기 원하지도 않는다. 나쁜 소식보다는 좋은 소식을 기다리듯이 사람들은 누군가를 만날 때 그로부터 즐거움을 받기 바란다. 슬픈 고인이야기는 목사나 신뢰할 수 있는 친구를 찾아가서 말하는 것이 좋다. 반면 즐겁고 재미있는 이야기는 모두에게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웃기는 이야기의 기준을 자신이 판단해서는 안 된다. 자칫 잘못하면 "썰렁이"라는 별

명이 꼬리처럼 붙어 웃기는 것에 대하여 자신감을 잃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웃기는 데에는 자신의 분위기도 한몫한다. 같은 말을 해도 누가 하면 웃기고 재미있지만 누가 하면 따분하기 짝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더욱 가까워지고 싶어한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이 서둘렀다는 생각을 못한다. 자신을 웃기는 사람과 동일시하는 것은 금물이다. 우리가 뻔히 아는 유머를 코미디언이 해도 웃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들로부터 웃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마음껏 웃는 것이다. 웃기는 것도 이미지가 필요하다. 이미지 뿐만 아니라 웃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습과 사전 준비가 있어야 한다.

재미있는 이미지를 만들려면 처음부터 많이 웃겨서는 안된다. 사람들은 욕심이 많기 때문에 당신으로부터 더 큰 웃음을 기대한다. 설득에 있어서 "문간에 발 들여놓기 IMF"이란 것이 있다. 처음에는 쉬운 부탁을 해서 들어주게 한 다음 큰 요구를 꺼내면 들어줄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말한다.

작은 것부터 웃겨야 한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더 큰 웃음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당신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점차적으로 자신만의 웃기는 테크닉을 습득할 것이다. 그래서 남들이 당신을 이야기할 때 한 번쯤은 당신의 테크닉으로 당신이 없는 동안에도 한 번 더 웃게 된다.

돈이 돈을 부르는 자본주의 이론처럼 웃음은 또 다



▲ 우스운 유머적인 표현을 가진 사람. 웃음은 유머와 재미를 준다.